

##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 중 옷칠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Chinese Lacquer Art from a Historical and Cultural Perspective

주 저 자 : 마시금 (Ma, Shi Qin)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학과 박사 과정

공 동 저 자 : 탕문헌 (Tang, Wen Xuan)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학과 박사 과정

교 신 저 자 : 최경란 (Choi, Kyung-Ran)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공간문화디자인학과 교수  
ran@kookmin.ac.kr

<https://doi.org/10.46248/kids.2026.1.559>

접수일 2026. 02. 20. / 심사완료일 2026. 03. 14. / 게재확정일 2026. 03. 16. / 게재일 2026. 03. 30.

## Abstract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evolution and differences in Chinese and Korean lacquer art across social structures, life practices, and aesthetic expressions from a historical-sociological perspective. Based on Pierre Bourdieu's "Theory of Cultural Capital" and Donald A. Norman's "Emotional Design Theory," this research establishe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traces the dynamic progression from "macro-social order" to "meso-life practice" and "micro-aesthetic experience." The findings reveal that Chinese lacquer art evolved as "objectified cultural capital," emphasizing symbolism and ornamentality within the public sphere of ritual order and national systems. In contrast, Korean lacquer art developed as "embodied cultural capital," centered on functionality and a restrained material aesthetic rooted in Confucian everyday ethics. The comparative analysis facilitated by this framework elucidates the endogenous divergence in aesthetic logic between the two nations and explores the potential for transforming traditional lacquer paradigms into modern design languages, providing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contemporary reconstruction of lacquer culture.

## Keyword

Lacquer(옻칠), China-Korea Comparison(한-중 비교), Cultural Capital(문화자본), Life Culture(생활문화), Aesthetic Characteristics(미적 특성)

## 요약

본 연구는 역사사회학적 관점에서 한중 옻칠의 사회 구조, 생활 실천 및 미적 표현의 변천과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피에르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이론'과 도널드 노먼의 '정서적 디자인 이론'을 결합하여 '거시적 사회 질서—중관 생활 실천—미시적 심미 경험'으로 이어지는 역동적 분석 프레임워크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옻칠은 국가적 예제와 권력 질서 속에서 상징성과 장식성을 극대화한 '객관화된 문화자본'으로 정착된 반면, 한국 옻칠은 유교적 일상 윤리를 바탕으로 기능성과 재료의 절제미를 강조한 '체화된 문화자본'으로 발전해 왔음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 분석 틀을 통해 양국 옻칠의 미적 논리 차이를 내재적으로 설명하며, 전통 옻칠의 조형 패러다임이 현대 디자인 언어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옻칠 문화의 현대적 재구성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 목차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1-3. 연구 분석 틀

### 2.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중 옻칠의 전개

- 2-1 중국 옻칠의 역사적 전개
- 2-2 한국 옻칠의 역사적 전개

2-3 한중 옻칠 발전 구조와 역사적 특성 비교

### 3.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중 옻칠의 활용

- 3-1 중국 생활문화에서의 옻칠 활용
- 3-2 한국 생활문화에서의 옻칠 활용
- 3-3 한중 옻칠 생활문화 응용의 비교

### 4. 한중 옻칠의 표현 방식과 심미적 특성

- 4-1 중국 옻칠의 표현 방식

##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옷칠 공예는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 공예 양식으로, 단순한 생활 용구를 넘어 각 사회의 통치 이념과 미의식을 응축한 중요한 상징 매체로 기능해 왔다. 중국과 한국은 옷칠 공예의 발전 과정에서 기술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사회 구조와 가치 체계 속에서 각기 상이한 미적 전통을 형성해 왔다. 중국의 옷칠은 왕권 중심의 예제(禮制) 문화를 바탕으로 화려한 장식성과 상징성을 발전시킨 반면, 한국은 성리학적 생활 윤리를 바탕으로 실용성과 절제된 미감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기법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양국이 장기간 축적해 온 역사문화와 생활 방식이 투영된 아비투스(Habitus)의 산물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단일 문화권 내의 공예사적 고찰에 집중해 왔으며,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양국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는 역사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중 옷칠의 발전 양상을 비교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한중 옷칠이 거친 상징화와 형식화의 변천 과정(Process)을 심층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전통 공예가 지닌 미학적 논리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디자인 실무를 위한 객관적인 심미적 참조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고대부터 근대 이전까지의 한중 전통 옷칠 기물을 대상으로 하며, 궁정 공예부터 일상 기물까지 포괄하여 비교 고찰한다. 방법론적으로는 문헌 연구를 토대로 통시적(diachronic) 역사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고문헌, 유물 도록 및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옷칠의 기술적·미학적 변천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시대별 사회구조의 맥락 속에서 상호 대조한다. 특히 본 연구는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문화자본 이론’과 도널드 노먼(Donald A. Norman)의 ‘정서적 디자인 이론’을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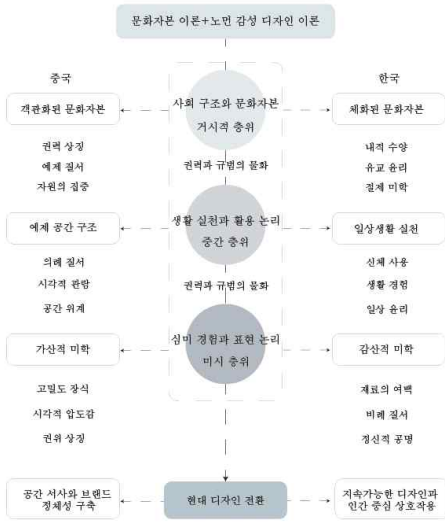
석 틀로 도입하여, 역사적 사실과 미학적 실천 사이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한다. 이러한 연구 경로는 단순한 기술사적 나열을 넘어, 역사적 사회 구조가 공예 미학적 표현으로 체화되는 심층적 동학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 1-3. 연구 분석 틀

본 연구는 한중 옷칠의 역사문화적 전개와 미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거시적 사회 구조, 중관적 생활 실천, 미시적 심미 경험의 3단계 연동 분석 틀을 구축하였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문화자본 이론’과 도널드 노먼(Donald A. Norman)의 ‘정서적 디자인 이론’을 결합한 이 분석 틀은,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일상의 실천을 거쳐 독자적인 미적 범주로 체화되는지를 규명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첫째, 거시적 차원에서는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이론을 적용한다. 양국의 사회 제도와 예제 질서가 옷칠이라는 매체에 투영되는 방식을 분석하며, 특히 중국 옷칠의 장식성을 ‘객관화된 문화자본(Objectified cultural capital)’으로, 한국 옷칠의 절제미를 ‘체화된 문화자본(Embodied cultural capital)’으로 규정한다. 이때 거시적 질서는 ‘권력과 규범의 물화(Objectification of Power and Norms)’ 과정을 통해 옷칠이라는 물질적 매체에 고착된다.

둘째, 미시적 차원에서는 노먼의 정서적 디자인 이론을 적용한다. 사용자의 인지 과정을 ‘본능적’, ‘행동적’, ‘반성적’ 층위로 구분하여, 중국의 ‘가산적(Additive) 미학’이 주는 본능적 압도감과 한국의 ‘감산적(Subtractive) 미학’이 유도하는 반성적 교감을 대조한다. 이 과정에서 중관 단계인 생활 실천은 ‘심미적 편향의 내면화(Internalization of Aesthetic Preference)’를 거쳐 개별 사용자의 감성적 지향으로 고착된다.



[그림 1] 한중 옷칠 비교를 위한 통합적 분석 프레임워크

이러한 통합적 분석 틀은 역사적 사실의 단순 나열에서 벗어나, ‘역사적 사회 구조(Macro) — 생활 실천(Meso) — 미적 표현(Micro)’으로 이어지는 연동 구조를 증명하는 핵심 방법론적 근거가 된다.

## 2. 역사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중 옷칠의 전개

### 2-1. 중국 옷칠의 역사적 전개

동아시아 전통 물질문화 체계 속에서 중국의 옷칠은 단순한 공예 기술의 축적을 넘어, 사회적 위계와 통치 이념을 가시화하는 핵심적 매개로 기능해 왔다. 옷칠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정치 제도와 생활 방식, 그리고 미의식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며 그 사회적 의미가 재구성되어 온 과정으로 이해된다. 특히 중국 옷칠은 국가 권력이 공예의 생산과 소비를 독점하는 과정을 통해, 권력의 위계 질서를 사물이라는 물리적 형태로 고착(Fixation)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하무도(河姆渡) 문화 유적의 주칠 목기는 초기 단계부터 옷칠이 물질문화의 핵심 요소였음을 증명한다.<sup>1)</sup> 신석기 시대의 실용적 기물로 시작된 옷칠은 상(商)·주(周) 시대에 이르러 제례(祭禮) 체계와 결합하며 지배 계층의 위엄을 상징하는 물질로 변모하였다.<sup>2)</sup> 『한비자(韓非子)』 「십과(十過)」 편에서 순(舜)임

1) 홍석(洪石), 『전국진한칠기연구』, 문물출판사, 2006, pp.1-15.

금이 칠기를 제기로 사용하려 하자 신하들이 사치스러움을 간했다는 기록은, 옷칠이 지닌 물리적 희소성이 초기 국가 형성 단계부터 통치자의 권위와 직결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sup>3)</sup> 전국시대 초(楚)나라를 중심으로 발달한 칠기는 용문(龍紋)과 운문(雲紋) 등 정교한 도상을 통해 지배 계층의 신분을 가시화하였으며, 이는 국가가 관리하는 관영 수공업 체제라는 제도적 배경 속에서 실현되었다.<sup>4)</sup>



[그림 2] 전국시대 용문 칠두(漆豆), 호북성 구려둔 출토, 기원전 4-3세기<sup>5)</sup>

한대(漢代)에 이르러 옷칠 생산은 국가 행정 체계에 의해 더욱 엄격히 통제되었다. 촉군(蜀郡)과 광한(廣漢) 등 관영 공방에서 제작된 칠기 저부에는 제작 관청과 관리, 실제 작업을 수행한 장인의 명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어공(御工)’ 제도는 국가 권력이 공예의 전 공정에 개입하여 그 품질과 상징성을 독점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지표이다.<sup>6)</sup> 이러한 제도적 독점은 칠기에 ‘가용성(Transferability)과 자산적 속성’을 부여하였으며, 칠기를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정의한 ‘객관화된 문화자본(Objectified cultural capital)’의 전형으로 가능하게

2) 전자병(田自秉), 『중국공예미술사』, 동방출판중심, 2010, p.62.

3) 한비(韓非), 『한비자』, 「십과」 편, 기원전 3세기.

4) 소국위(蘇國偉)·강심진(江心宸)·진언정(陳彥町), '전국시기 초국 칠기예술(戰國時期楚國的漆器藝術)', 한스출판사, 예술연구논단(Art Research Letters), Vol.9, No.4, 2020.11, pp.356-362.

5)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 『九連墩楚墓』, 科學出版社, 2007, p.45.

6) 손기(孫機), 『한대물질문화자료도설수정본(漢代物質文化資料圖說修定本)』, 중화서국, 2020, pp.247-268.

한 결정적 동인이었다. 즉, 옷칠은 무형의 예제 질서를 유형의 물질적 부로 전환함으로써, 소유와 유통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증명하는 자본의 형태로 안착된 것이다.<sup>7)</sup>

명대(明代) 가정(嘉靖)·만력(萬曆) 연간의 조칠합(剔紅)은 이러한 객관화된 자본의 속성을 극대화하여 보여준다. 수백 층에 이르는 옷칠의 적층과 그 위에 새겨진 정교한 도상은 단순히 기술적 숙련을 넘어, 국가 권력이 장인의 방대한 노동 시간과 희귀한 물적 자원을 사물 안에 물리적으로 결집(Aggregating)시켰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이다. 이는 황권이라는 추상적 권위가 옷칠이라는 물질적 층위를 통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실체로 고착(Fixation)되었음을 의미한다.<sup>8)</sup>



[그림 3] 명대 가정 연간 용문 조칠합(剔紅漆奩), 16세기 중엽<sup>9)</sup>

근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옷칠 생산은 봉건적 예제 질서에서 탈피하여 예술 매체로 재구성되었다. 도널드 노먼(Donald Norman)이 제시한 '반성적 차원(Reflective level)'에서 볼 때, 현대의 옷칠은 과거의 위계적 상징성을 넘어 사용자의 문화적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감성적 매체로 진화하였다.<sup>10)</sup> 이는 칠예의 가치가 사회적 위계의 '강요'에서 개인의 취향과 문화적 '정체성(Identity)'을 확인하는 미학적 인정의 과정으로 전이되었음을 보여준다.)

7) 피에르 부르디외, 황해숙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2006, pp.120-125.

8) 황성(黃成) 저, 왕세양(王世襄) 해설, 『휴식록해설(鬆齋錄解說)』, 삼련서점, 2013, p.88.

9) 故宮博物院, 명가정 용문 조칠합(明嘉靖龍紋剔紅漆奩), (2026.03.02.)  
www.dpm.org.cn

10) 도널드 A. 노먼, 이창우 역, 『감성 디자인』, 학지사, 2006, pp.88-92.

이상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중국 옷칠이 제국적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객관화된 문화자본'의 형성 메커니즘을 구축했는지 입증한다. 중국에서 옷칠이 관영 체제 속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무형의 권력을 유형의 물질로 전환하여 사회적 지위를 고착시키려 한 제국 특유의 자본화 전략이었으며, 이는 옷칠이 소유를 통해 가치를 증명하는 강력한 상징자본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한다.

## 2-2. 한국 칠예의 역사적 전개

중국 옷칠이 엄격한 예제(禮制) 규범 속에서 권위를 시각화하는 '객관화된 문화자본'으로 수렴된 것과 달리, 한국의 옷칠은 국가의 제도적 관리와 일상의 실용적 가치가 상호 침투하며 전개되었다. 한반도 초기 옷칠의 실증적 사례인 창원 다호리 유적 출토 칠기는 목재의 결을 보존하면서도 방수와 내구성을 극대화한 기술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용주의적 전통은 신라의 '칠전(漆典)'과 같은 관영 체제 내에서<sup>11)</sup> 단순히 지배층의 전유물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군사 무기 및 생활 기물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핵심 기술로 제도화되었다.



[그림 4] 창원 다호리 유적 출토 칠기, 삼한시대<sup>12)</sup>

한국 옷칠의 기술적 지향은 태골(胎骨)의 견고함과 칠층의 균일한 도포 등 기물의 도구적 완성도에 집중된 미적 논리를 형성하였다. 이는 도널드 노먼(Donald Norman)이 제시한 행동적 차원(Behavioral level)의 미학적 관점과 궤를 같이한다. 해당 이론은 디자인의 핵심 가치를 외형적 자극이 아닌 '수행의 즐거움과 숙련된 사용감'에서 찾는다.<sup>13)</sup> 한국 옷칠이 추구한 내구성과 방수 성능은 사용자가 일상에서 기

11) 김부식(金富軾), 『삼국사기(三國史記)』, 잡지(雜志) 제9, 「직관(職官)」 중, 1145.

12) 국립김해박물관, 『고대의 빗깍, 옷칠』, 국립김해박물관, 2019, p.38.

13) 도널드 A. 노먼, Op. cit. 2006, pp.88-92.

물을 다루며 느끼는 기능적 신뢰와 직결되며, 결과적으로 한국 칠에는 기물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실천적 미의식의 산물로 정의된다.

고려시대 나전칠기가 세계적 기술 정점에 도달한 배경 역시 국가 공장 체계 아래 세습된 기술자들의 숙련된 노동력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기록된 나전의 정밀함은 단순한 시각적 장식을 넘어, 장인이 오랜 수련을 통해 신체에 내면화한 감각적 역량이 기물의 물질성으로 투영된 결과이다. 이는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체화된 문화자본(Embodied cultural capital)이 생산자의 신체적 기술과 습속(Habitus)에 축적되어 가시화된 사례로 분석된다.<sup>14)</sup> 따라서 한국의 나전칠기는 외부의 권위를 빌려온 ‘객관화된 기호’라기보다 장인의 몸에 축적된 기술적 자산이 물질화된 결집체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5] 고려 나전칠기 경함, 12-13세기<sup>15)</sup>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절제 미학의 영향으로 화려한 장식은 정제되었으나,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통한 국가적 옷나무 관리와 18세기 이후 민간 시장의 확대는 옷칠이 보편적 생활 문화로 안착되는 제도적 토대가 되었다.<sup>16)</sup> 결과적으로 한국 칠예의 역사는 권위의 수직적 분화보다 일상의 실천 속에서 가치가 축적되는 수평적 확산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중국의 ‘장식적·객관적’ 전개와 대비되는 한국만의 ‘생활 지

향적·체화된’ 독자적 분석 기준을 형성한다.

### 2-3. 한중 옷칠 발전 구조와 역사적 특성 비교

한중 양국은 천연 옷칠이라는 동아시아 공통의 물질적 기반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와 통치 이념의 지향점에 따라 상이한 전개 경로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조형 양식의 변천이 아니라, 각 사회가 옷칠이라는 매체에 투영한 ‘문화적 자본화 방식’의 근본적 상이함에서 기인한다.

우선 발전 동력의 측면에서 중국의 옷칠은 거대 제국의 예제(禮制) 질서를 시각적으로 표준화하려는 국가 권력의 의지에 의해 추동되었다. 이는 기물 자체가 소유자의 지위를 증명하는 ‘객관화된 문화자본(Objectified cultural capital)’으로 기능하게 했다. 반면 한국의 옷칠은 일상의 실용 가치와 긴밀히 결합되어, 반복적인 숙련과 실천을 통해 내면화되는 ‘체화된 문화자본(Embodied cultural capital)’의 성격을 강화했다. 이러한 자본화의 경로 차이는 도널드 노먼(Donald Norman)이 제시한 미학적 층위의 분화로 이어진다. 중국 칠예는 ‘본능적 차원(Visceral level)’의 화려한 시각적 서사를 지향했고, 한국 칠예는 사용자의 신뢰와 성능을 중시하는 ‘행동적 차원(Behavioral level)’의 미학을 추구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국의 옷칠 발전 구조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중 옷칠 발전 구조의 역사적 특성 비교

비교 항목	중국	한국
핵심 자본 형태	객관화된 문화자본 (기물 중심)	체화된 문화자본 (숙련/경험 중심)
미학적 분석 층위	본능적 차원 (시각적 권위)	행동적 차원 (도구적 신뢰)
기술적 발현 방식	복합 장식 및 서사적 화려함	물성 존중 및 구조적 견고함
사회적 작동 기제	제국적 예제 질서의 표준화	생활 공동체의 실용적 전승
역사문화적 배경	중앙집권적 황권의 물질화	성리학적 절제와 실용 공예

결론적으로 한중 옷칠이 서로 다른 궤적을 그리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각 사회가 오랜 역사 속에서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내린 ‘가치 선택’의 결과이다. 중국 옷칠은 거대한 권력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物)’의 가능성을 극대화하여 전시적 가치를

14) 피에르 부르디외, 황혜숙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2006, pp.142-145.

15) 국립중앙박물관, 『나전칠기: 천년을 이어 온 빛』, 국립중앙박물관, 2006.

16) 이종석, 『한국의 전통공예』, 열화당, 1994, pp.78-80.

구축했고, 한국 옷칠은 일상 속에서 사용자의 신뢰와 편안함을 지향하는 ‘인(人) 중심의 가치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역사적 뿌리의 차이는 현대 디자인이 전통을 재해석할 때, 중국 옷칠의 연구와 창작은 전통 기물 속 조형 언어와 상징 기호의 발굴 및 현대적 전환에, 한국 옷칠의 실천은 일상 속 기능 논리와 상호작용 경험의 복원 및 지속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 3. 생활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중 옷칠의 활용

#### 3-1 중국 생활문화에서의 옷칠 활용

중국 생활문화에서 옷칠의 활용 방식은 제국적 권위와 문인적 정체성이 기물을 통해 교차하는 양상을 띠며 발전하였다. 특히 중국 칠예의 미적 패러다임이 집대성된 명청 시기에 이르러, 칠예는 단순한 소형 기명을 넘어 실내 가구와 공간 구성의 중심축으로 확장되었으며, 거주 공간의 시각적 위계를 재편하는 핵심적인 구조적 장치(Structural Device)로 안착하였다. 궁내 건설된 대형 칠기 가구들은 건축적 규모와 수백 층에 달하는 공예적 밀도를 통해 소유자의 자원 동원력을 물질적으로 증명한다.

이러한 물리적 실체는 사용자의 시각적 처리 용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자극을 제공하며, 논리적 판단 이전에 즉각적인 경외감을 유도하는 심리적 중개 기제로 작동한다. 도널드 노먼(Donald Norman)이 제시한 본능적 차원(Visceral level)의 미학은 감각적 자극이 인지적 판단 이전에 즉각적인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단계를 의미한다. 자금성 건청궁의 보좌나 대형 병풍이 선사하는 압도적인 붉은 색채와 치밀한 조각은 방문자의 인지적 부하(Cognitive load)를 극대화하며, 이는 이성적 성찰이 개입하기 전 권위에 대한 무의식적 수용을 이끌어낸다. 즉, 중국의 대형 칠기는 관람자의 감각 체계를 점유함으로써 심리적 굴복을 유도하는 통치 미학의 실체로 분석된다.<sup>17)</sup>



[그림 6] 자금성 건청궁 보좌와 대형 칠기 병풍<sup>18)</sup>

이러한 메커니즘은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제안한 객관화된 문화자본(Objectified cultural capital)의 작동 원리와 직결된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문화적 가치가 고착된 물질적 대상은 그 자체로 지배 계층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자산이 된다. 중국의 조칠(剔紅) 가구는 제작에 투입된 막대한 노동 시간과 희귀한 재료를 외연으로 드러냄으로써, 권력을 만질 수 있고 측정 가능한 '물리적 실체'로 변모시킨다. 특히 『대명회전(大明會典)』에 기록된 계급별 칠기 사용 규제는 이러한 물질적 화려함이 국가 제도에 의해 공인된 권위의 지표였음을 입증한다.<sup>19)</sup>

[표 2] 중국 칠기 활용의 객관적 특성 및 분석

분석 차원	시각적-물리적 근거	이론적 함의
공간의 위계	자금성 건청궁 보좌 및 병풍	본능적 차원 (Visceral Level): 시각적 압도를 통한 권위의 자연화
가치의 고착	수백 층의 조칠 가구 및 집약적 문양	객관화된 문화자본: 노동 집약성을 통한 상징적 자산 증명
제도적 재생산	『대명회전(大明會典)』 규제 기록	문화적 재생산: 법적 권위의 물질적 형상화 및 고착

결결과적으로 중국의 칠공예는 '관람과 전시'라는 공간적 실천을 통해 권위를 재생산하는 가산적(Additive) 속성의 응용 논리를 형성하였다. 이는 기물이 사용자에게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압도하는 '객관화된 힘'으로 존재했음을 시사하며, 이

18) 故宫博物院, 乾清宫宝座陈设, (2026.03.02.)

www.dpm.org.cn

19) 申時行 등 편, 『大明會典』, 中華書局, 1989, 卷62.

17) 도널드 A. 노먼, Op. cit. 2006, pp.38-42.

러한 적층과 증폭의 방식은 후술할 중국 칠에 고유의 미학적 담론을 뒷받침하는 실증적 근거가 된다.

### 3-2 한국 생활문화에서의 옷칠 활용

한국 옷칠 공예의 발전 경로는 기물의 물리적 견고성과 실용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용의 미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이르러 성리학적 예치(禮治) 이념이 사회 전반의 원리로 정착되면서, 옷칠의 심미적 가치는 전시적 과시가 아닌 '일상적 절제'의 미학으로 재편되었다. 이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금사령(禁奢令)과 『산림경제(山林經濟)』 등에서 기물의 과도한 장식을 '완물상지(玩物喪志)'의 근원으로 규정한 데서 기인하며, 이러한 윤리적 규제는 나전칠기의 조형 언어를 밀집된 장식에서 구조적 여백과 기하학적 비례를 강조하는 형태로 전환시켰다.<sup>20)</sup>

이러한 절제된 조형성은 근대 연구자들에 의해 그 객관적 가치가 재발견되기도 하였다. 아사카와 타쿠미(淺川巧)는 조선 소반의 매력이 '작위적이지 않은 인공미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절제된 디자인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일상 속에서 기능과 심미성의 완벽한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필연적 결과라고 분석하였다.<sup>21)</sup> 이는 한국 옷칠이 추구한 미학이 화려한 기교를 덜어내고 기물의 본질과 실용적 가치를 전면으로 내세웠음을 시사한다.



[그림 기] 조선시대 나주반(羅州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sup>22)</sup>

이러한 조형적 특성은 초기 단계부터 한국 칠기만의 독자적인 기술적 문법으로 내재화되어 있었다. 고

20) 『經國大典』, 禮典, 「器用」 조항, 1485.

21) 아사카와 타쿠미(淺川巧), 『조선의 소반(朝鮮의小膳)』, 학고재, 1996.

22) 국립중앙박물관, 나주반(羅州盤), (2026.03.02.) [www.museum.go.kr](http://www.museum.go.kr)

고학적 근거로,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출토된 칠기는 당시의 시대적 기교를 넘어 매우 얇고 견고한 도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두께감과는 차별화되는 기능 중심의 기술적 관성을 입증한다.<sup>23)</sup> 이러한 물성적 특징과 제도적 규범의 결합은 한국 칠기를 '전시적 상징물'에서 '실천적 일용기'로 변모시켰다.

[표 3] 한국 칠기 활용의 객관적 특성 및 분석

분석 차원	시각적·물리적 근거	이론적 함의
자생적 논리	다호리 유적의 얇은 도막	기술적 관성(기능 최적화)
윤리적 규제	『경국대전』 금사령	문화적 재생산(조형 절제)
실천적 가치	고빈도 사용 기물의 내습성	체화된 아비투스(몸의 기억)

여기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이론은 한국 옷칠의 생활화 과정을 설명하는 필수적 기제로 작동한다. 중국 옷칠이 시각적 자극을 통해 위계를 과시하는 '객관화된 상징자본'이라면, 한국 옷칠은 사용자의 신체적 반복 행위를 통해 기물과 사용자가 일체화되는 '체화된 자본(Embodied Capital)'의 전형을 보여준다. 즉, 한국 옷칠의 가치는 제작 완료 시점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일상적 사용을 통해 도막의 경도가 높아지고 광택이 깊어지는 시간의 축적 속에서 완성된다.

한국 옷칠의 생활문화 응용은 '체화된 아비투스'가 일상 실천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밥통·쟁반 등 고빈도 사용 기물에 옷칠이 집중된 것은, 재료의 기능적 우수성이 반복적 사용 경험 속에서 몸에 익혀지는 과정이었다. 노먼 노먼(Norman)의 행동적 차원(Behavioral level)에서 볼 때, 옷칠 기물의 매끄러운 촉감과 시간에 따라 깊어지는 광택은 사용자에게 '수행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이는 기물과의 장기적 유대를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옷칠은 기물의 과잉을 억제함으로써, 사용자의 일상과 기물이 장기간에 걸쳐 상호 침투하고 완성되는 독자적인 생활 미학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23) 국립김해박물관, 『창원 다호리 유적 - 칠기』, 국립김해박물관, 2005, pp.88-92.

### 3-3 한중 옷칠 생활문화 응용의 비교

한중 양국의 옷칠 생활문화는 동아시아라는 공통의 재료적 토대 위에서 출발했으나, 물질성을 시간과 공간의 매개체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앞선 논의를 종합할 때, 한중 옷칠의 응용은 ‘공간을 구조화하려는 전략(중국)’과 ‘시간을 의례화하려는 전략(한국)’이라는 두 가지 핵심 범주(Paradigm)로 분화되어 발전해 왔다.<sup>24)</sup>

중국 옷칠의 응용 논리는 ‘공간의 정치학’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가구, 문방구, 진설기 등에서 나타나는 옷칠의 두꺼운 도막과 화려한 장식 밀도는 그 자체가 권위의 두께를 상징하며, 정적인 공간 속에서 계급적 위계를 공고히 하는 기념비적 시간을 구축한다. 이는 물질적 과잉(Redundancy)을 통해 제도적 관계를 고착화하는 전략으로, 칠기를 공간의 질서를 완성하는 구조적 요소로 기능하게 한다.

반면, 한국 옷칠의 응용 논리는 ‘행위의 의례화’에 집중된다. 식기, 소반, 이동식 일용기 등 일상적인 도구들에 도입된 옷칠은 사용자의 신체적 반복 행위를 통해 기물과 사용자가 일체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한국의 옷칠은 완성된 상태로 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사용되고 마모되며 닳아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유동적인 시간을 담고 있다. 이는 피에르 부르디외가 지적한 아비투스(Habitus)와 같이, 오랜 사용 경험이 사용자의 신체 습속으로 내면화되는 ‘흐르는 의례의 성격’을 띤다.

[표 4] 한중 옷칠 생활문화 응용 범주의 비교

비교항목	중국: 공간의 구조화	한국: 행위의 의례화
적용중심	예제 및 공간의 권위적 상징	일상 실천 및 신체적 사용
기물체계	가구, 문방구, 고정식 진설기	식기, 소반, 이동식 일용기
응용범주	물질적 풍요를 통한 ‘가산적 논리’	기능적 순수를 통한 ‘절제적 논리’
시간범주	권력의 영구화 (정적 공간)	생활의 연속성 (동적 신체)

이러한 응용 범주의 차이는 현대 디자인 환경에서 각기 다른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으로 변환된다. 중국 옷칠의 공간 구조화 논리는 현대적 공간 디자인에서 강렬한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24) 류태준·최경란, '15~19C 한국과 중국 가구디자인의 표현양식 및 특성',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연구, Vol.25, No.1, 2012.02, pp.279-290.

서사(Symbolic Narrative)’로서 그 가치가 극대화되고 있다.<sup>25)</sup> 반면, 한국 옷칠의 행위 의례화 논리는 사용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인터랙션 설계’로 전환되어, 사물과 인간이 장기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감성 공예의 토대가 된다. 결론적으로 한중 양국의 옷칠 생활문화는 권위의 시각화와 기능의 체화라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지니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 디자인적 가치로 수렴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전환은 전통 미학의 단절이 아니라, 사물과 공간, 그리고 사용자의 경험이 맺는 관계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는 향후 옷칠이 현대 가구 디자인과 융합될 때, 각국이 지닌 고유한 생활 철학적 자산을 어떠한 전략으로 조형화할 것인지에 대한 핵심적인 연구 기반을 형성한다.

## 4. 한중 옷칠의 표현 방식과 심미적 특성

### 4-1 중국 옷칠의 표현 방식

중국 옷칠의 표현 체계는 거시적인 권력 구조가 기물의 표면에 투영된 ‘가산적 미학(Additive Aesthetics)’의 산물이다. 명대 황성(黃成)의 『휴식록(髹飾錄)』에서 강조한 “칠은 두터워야 한다(漆欲其厚)”는 지침은 단순한 공예 기교를 넘어, 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려 시각적 질량감을 확보하려는 제국 특유의 형식 논리를 대변한다. 이러한 물리적 구축은 보이지 않는 통치 이념을 ‘두께’와 ‘부피’라는 구체적 실체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조각칠(剔紅)의 경우 0.1mm의 칠층을 수백 번 이상 반복적으로 쌓아 올려 1~2cm의 두께를 확보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방대한 제작 시간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관점에서 볼 때, 기물의 이러한 물리적 두께는 숙련된 노동력과 시간을 독점적으로 ‘점유(Appropriation)’했음을 입증하는 ‘객관화된 문화자본(Objectified cultural capital)’의 실증적 지표가 된다. 즉, 칠층의 두께는 투입된 노동 시간과 자본을 물리적으로 응축하여, 소유자의 사회적 위계를 즉각적으로 가시화하는 권위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다.

25) 마가상, '칠 예술을 이용한 제품 디자인 연구: 나전 칠기 기법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pp.37-47.



[그림 8] 축적의 가산적 미학: 명대 조각칠(剔犀) 감환문합(劍環紋盒),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15-16세기<sup>26)</sup>

이러한 물리적 축적은 표면의 서사 구조로 전이되어, 기면을 빈틈없이 채우는 ‘고밀도 서사성(High-density Narrativity)’을 형성한다. 촘촘하게 새겨진 산수와 누각 문양은 사용자의 시각적 인지 부하를 극대화하며, 이는 관찰자가 이성적 분석에 이르기 전 본능적 차원(Visceral level)에서 압도적인 위엄을 체감하게 하는 장치가 된다. 이는 추상적인 예제(禮制)의 권위가 피통치자에게 직관적으로 수용되는 심리적 통로를 형성한다.

결국 중국 옷칠은 고도의 기술적 정교함을 매개로 공간의 심리적 위계를 구축하는 ‘공간적 격리 장치’이자, 제국의 질서를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통치 전략의 물리적 현현(顯現)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산적 표현 구조는 기물을 단순한 도구에서 통치 이념을 가시화하는 상징적 매체로 격상시키며, 중국 특유의 화려하고 장엄한 공간 미학을 완성하는 핵심 토대가 된다.

#### 4-2 한국 옷칠의 표현 방식

한국 옷칠 공예의 조형 체계는 재료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위적인 장식을 절제하고 여백을 확보하는 ‘감산적 미학(Subtractive Aesthetics)’에 기반한다. 이는 단순히 장식을 덜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기물의 형태와 재료의 비례를 통해 조형적 질서를 완성하는 고도의 미학적 전략이다. 특히 한국 나전공예는 화려한 자개 문양을 도입하면서도 바탕이 되는 흑칠면의 여백을 의도적으로 남겨

두는 ‘여백의 운용’을 보여준다. 이는 수백 겹의 칠층을 쌓아 물리적 질량감을 확보하려던 중국의 방식과 달리, 얇고 투명한 칠층을 통해 바탕재(나무)의 결을 은은하게 투영하거나 자개의 영롱한 빛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재료 본연의 진실성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다.<sup>27)</sup>



[그림 9] 나전 칠 함(螺鈿函),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sup>28)</sup>

이러한 표현 양식은 조선시대 유교적 생활 윤리가 공예 전반에 체화된 결과이다. 장식의 과잉을 경계하고 소박함과 절도를 중시했던 사대부의 가치관은, 옷칠 표면을 화려한 서사의 장이 아닌 정서적 수양을 비추는 거울로 변화시켰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외부로 과시되는 물질적 부보다는 사용자의 고결한 인격과 절제된 태도가 기물에 투영된 ‘체화된 문화자본(Embodied cultural capital)’의 발현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 옷칠은 시각적 압도를 넘어 사용자와의 친밀한 유대 속에서 안목과 품격을 입증하는 문화적 장치로 작동한다.

나아가 이러한 미적 구조는 도널드 노먼(Donald Norman)이 제시한 심미 경험의 ‘반성적 차원(Reflective level)’을 강력하게 자극한다. 사용자는 기물을 단순히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사용과 만짐을 통해 옷칠 특유의 매끄러운 촉감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깊어지는 빛깔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옷칠 기물을 완결된 관람 대상이 아닌, 시간의 축적 속에서 사용자와의 ‘정신적 공명(Spiritual

27) 이광웅, ‘조선시대 나전칠기 문양의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Vol.10, No.2, 2009.04, pp.311-318.

28) 국립중앙박물관, 나전 칠 함(螺鈿函), (2026.03.02.) www.museum.go.kr

26)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Box with Pommel Scrolls, (2026.03.02.) www.metmuseum.org

resonance)’을 통해 의미가 생성되는 ‘생활 공예적 심미 구조’로 이해하게 한다.[18] 결과적으로 한국 옷칠은 장식을 비위념으로써 사용자의 내면적 품격을 채우는 역설적 미학을 완성하며, 물질적 소유보다 정신적 가치를 상위의 자본으로 인식했던 독자적 문화 맥락을 증명한다.

### 4-3 한중 옷칠 표현 방식의 비교

한중 양국의 옷칠 표현 방식은 동일한 동아시아 칠 문화적 근간을 공유하면서도, 형식 구축의 목표와 심미적 지향점에서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중국의 옷칠이 기술의 복잡화와 장식의 중층화를 통해 사회적 위계를 시각화하는 ‘객관화된 상징 체계’로 발전했다면, 한국의 옷칠은 재료의 본질과 사용자의 절제를 결합하여 개인의 안목을 드러내는 ‘체화된 심미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는 시각 언어의 측면에서 중국은 표면의 도상적 구축(Iconographic construction)에, 한국은 질감과 형태의 질서(Textural order)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형식적 분화는 각 사회 구성원의 아비투스(Habitus)가 공예적 표현으로 외화된 결과이다. 피에르 부르디외의 관점에서 중국 옷칠의 ‘가산적 미학’은 물리적 실체인 두께와 밀도를 통해 누구든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상징자본을 과시하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 옷칠의 ‘감상적 미학’은 유교적 절제미라는 특정 계층의 생활 규범이 내면화된 결과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고도의 심미안을 가진 집단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내밀한 상징 권력으로 작동한다. 즉, 중국이 권위를 외형적으로 ‘전사’했다면 한국은 권위를 내면적으로 ‘체화’한 것이다.

[표 5] 한중 옷칠 표현 방식 및 심미적 특성 비교

비교 항목	중국: 가산적 미학	한국: 감상적 미학
형식 원리	층위의 중첩 (Physical Layering)	비움과 여백 (Spatial Void)
자본의 성격	객관화된 문화자본 (물질적 과시)	체화된 문화자본 (정신적 수양)
인지 수준	본능적 차원 (Visceral Level)	반성적 차원 (Reflective Level)
심미 지향	상징적 위엄과 압도감	내향적 절제와 조화
현대 응용 전략	공간 서사 및 브랜드 이미지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인본적 상호작용

이상의 대비 분석을 통해 도출된 양국의 표현 논리는 현대 디자인으로의 전환에서도 서로 다른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중국 옷칠의 장식적·서사적 구조는 현대 공간 디자인에서 압도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공간 서사 전략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 옷칠의 재료 중심적이고 절제된 논리는 장식을 배제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현대의 지속가능한 생활 디자인의 철학적 기반이 된다.

결론적으로 옷칠 표현 방식에 대한 비교 연구는 단순한 과거의 복원이 아니다. 그것은 전통 공예에 축적된 아비투스를 현대적 상징 자본으로 재맥락화함으로써, 현대 디자인이 대중에게 어떤 감각적 권위와 정서적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해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가치를 지닌다. 이는 향후 현대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미학적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핵심적 근거가 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동아시아 칠 문화라는 공통의 근간 위에서 중국과 한국 옷칠이 어떠한 사회 구조적 메커니즘을 통해 상이한 미적 지향점을 형성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피에르 부르디외의 문화자본 이론과 도널드 노먼의 정서적 디자인 이론을 교차 적용하여, 옷칠을 단순한 공예 재료를 넘어 역사적 상징 권력과 사회적 습성이 응축된 상징 매체로 재해석하였다.

발전 구조의 측면에서 한중 옷칠의 분화는 사회적 자본의 구동 논리 차이에서 기인한다. 중국 옷칠은 국가 권력과 예제 질서가 투영된 객관화된 실체로서, 물리적 두께를 통해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자본을 증명하는 형식 논리를 구축하였다. 반면 한국 옷칠은 유교적 생활 윤리가 내면화된 체화된 표상으로서, 물질적 축적보다 사용자의 절제된 인격과 안목을 드러내는 내면적 지표로 기능하였다.

표현 방식에서의 가산적 미학과 감상적 미학의 대비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성과이다. 중국 옷칠이 고밀도의 도상을 통해 시각적 압도감을 형성했다면, 한국 옷칠은 재료의 질감과 비례를 통해 사용자의 반성적 공명을 유도하는 심미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중 옷칠의 현대적 전환 전략을 다음과 같이 구조화하였다. 중국

모델은 공간 서사와 시각적 압도를 통해 권위의 구축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창출하며, 이는 브랜드 서사와 상징적 높이를 강조하는 시각적 압도 전략으로 전환될 수 있다. 반면 한국 모델은 사용자와의 감성적 공명 및 촉각적 배려를 통해 내면적 지속성이라는 일상 미학을 지향하며, 이는 인간 중심의 경험과 감성적 연결을 강조하는 감성 라이프스타일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대비는 현대 디자인에 있어 전통 언어의 현대적 재해석을 위한 방법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는 기술사 중심의 제한적 논의를 넘어 역사적 사회 구조, 생활 실천, 미적 표현의 3층위 연동 분석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프레임워크는 양국 옷칠의 미적 논리 차이가 형성된 내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시적 고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유물 실증과 현대적 설계 사례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전통 옷칠 언어가 지닌 보편적 디자인 방법론으로의 전환 과정을 더욱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국립김해박물관, 『고대의 빛깔, 옷칠』, 국립김해박물관, 2019.
2. 국립김해박물관, 『창원 다호리 유적-칠기』, 국립김해박물관, 2005.
3. 국립중앙박물관, 『나전칠기: 천년을 이어 온 빛』, 국립중앙박물관, 2006.
4. 김부식, 『삼국사기』, 1145.
5. 도널드 A. 노먼, 이창우 역, 『감성 디자인』, 학지사, 2006.
6. 아사카와 타쿠미, 『조선의 소반』, 학고재, 1996.
7. 양명 저, 왕세양 해설, 『휴식록해설』, 삼려서점, 2013.
8. 이종석, 『한국의 전통공예』, 열화당, 1994.
9. 전자병, 『중국공예미술사』, 동방출판중심, 2010.
10. 피에르 부르디외, 황혜숙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2006.
11. 한비, 『한비자』, 기원전 3세기.
12. 홍석, 『전국진한칠기연구』, 문물출판사, 2006.
13. 『경국대전』, 1485.
14. 孫機, 『漢代物質文化資料圖說修訂本』, 中華書局, 2020.
15. 申時行 등 편, 『大明會典』, 中華書局, 1989.
16. 湖北省文物考古研究所, 『九連墩楚墓』, 科学出版社, 2007.
17. 류태준·최경란, ‘15~19C 한국과 중국 가구디자인의 표현양식 및 특성’, 한국디자인학회, 디자인학연구, 2012.
18. 이광웅, ‘조선시대 나전칠기 문양의 조형적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기초조형학연구, 2009.
19. 소국위·강심진·진언정, ‘전국시기 초국 칠기예술’, 한스출판사, 예술연구논단, 2020.
20. 마가상, ‘칠 예술을 이용한 제품 디자인 연구: 나전 칠기 기법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21. www.dpm.org.cn
22. www.metmuseum.org
23. www.museum.go.kr